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에 대한 융합적 연구

홍은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Eunyoung Hong*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논문은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G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200명을 편의표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21.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 운영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재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하며, 특히 임상실습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호사 이미지와 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사 이미지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호전문직관 정립이 더욱 필요하다.

• 주제어 : 간호학생, 간호전문직관,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relationships among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A convenience sample of 200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 college in G city, from May 12 to 16, 2014.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PC ver 21.0 program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creasing nursing professionalism can be an effective way to change nurse image more positive among nursing students, especially before clinical practice. A collaborative effort among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leaders in practice is needed to change nurse image more positive.

•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ism, Nursing education, Nurse Imag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홍은영(heyne@hanmail.net)

Received July 18,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August 18,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간호사'가 2012년 5위에서 2016년 2위로 상승하여[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가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모든 연령의 인구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14-17세의 인구 및 간호학과 신입생에 있어서 중요한데[2], 간호에 대한 이미지는 신입생모집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3-5]. 하지만 간호학과로 진학하는 신입생은 대중매체에서 간호사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묘사하는 틀에 박힌 예나 모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6], 간호교육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실제로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가지는 인식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점은 간호학과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이미지는 간호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간호에 대한 정책결정, 학생들의 진로결정, 대중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간호사의 자아이미지, 직무만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8], 간호학과 진학 후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교육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간호교육과정의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Ha[9]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과만족에 관한 연구 결과, 기존의 외국연구들에서 밝혀진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등의 요인만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과만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간호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1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간의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에 있어서 간호사 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와 관련 있는 변수로 간호전문직관이 있었는데,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11,12,13,14]가 있었으며, 또한 간호전문직관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11,1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로[15],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16], 간호사 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와 함께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견지를 형성하므로[16],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 및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에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향후 효율적 간호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에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융합연구로 추후 간호교육과정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에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의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시 최대그룹 수 4그룹,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80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08부가 회수되었고 부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00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사 이미지

Lee, Choi, Ko, Im & Hong[17]이 개발한 33문항의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Jang[18]이 29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Jang[18]은 요인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자질', '간호사 역할', '간호사 사회참여', '간호사 대인관계'의 4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Jang[18]의 연구에서의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 .53 - .83$ 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Yeun, Kwon & Ahn[15] (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29문항 중에서 간호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3개 문항을 제외한 26문항으로 수정한 Lee[14]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 .56 - .82$ 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Ha[9]가 제작한 34문항으로 구성된 학과만족도구를 Lee[19]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

직관 및 전공만족도는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및 전공만족도 차이는 분산분석 및 t-test를 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를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참가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차이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0.8±2.49세였고, 학년별로 2학년이 29.0%, 3학년이 27.0%, 4학년이 22.5%, 1학년이 21.5% 순이었다<Table 1>. 여학생이 전체의 7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57.5%, 주관적 건강이 '좋음' 이상인 경우가 78.5%였다.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곳으로 대학병원급인 경우가 65.5%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t=4.908$, $p=.003$)가 있었는데,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가 점수가 높았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으며($t=-2.106$, $p=.031$),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다($t=2.927$, $p=.004$).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 대학병원급인 경우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다($t=2.288$, $p=.023$).

간호전문직관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2.046$, $p=.042$),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064$, $p=.040$).

<Table 1> Differences of nurse imag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urse Image	F or t	Nursing Professionalism	F or t	Satisfaction of Major	F or t
			Mean±SD	(<i>p</i>)	Mean±SD	(<i>p</i>)	Mean±SD	(<i>p</i>)
Grade(Year)	1	43(21.5)	3.8±0.31 ^{ab}	4.908 (.003)	3.8±0.36	1.036 (.378)	3.9±0.39	1.381 (.250)
	2	58(29.0)	3.8±0.41 ^a		3.8±0.44		3.8±0.50	
	3	54(27.0)	3.6±0.45 ^b		3.7±0.39		3.7±0.53	
	4	45(22.5)	3.6±0.45 ^{ab}		3.8±0.43		3.9±0.49	
Sex	Male	44(22.0)	3.7±0.41	-2.167 (.031)	3.9±0.38	2.046 (.042)	4.0±0.46	2.539 (.012)
	Female	156(78.0)	3.8±0.46		3.8±0.41		3.8±0.49	
Religion	Yes	85(42.5)	3.8±0.41	2.927 (.004)	3.9±0.41	2.064 (.040)	3.9±0.50	2.109 (.036)
	No	115(57.5)	3.6±0.42		3.7±0.40		3.7±0.47	
Subjective health	≥ Good	157(78.5)	3.7±0.42	0.969 (.334)	3.8±0.42	1.525 (.129)	3.9±0.49	2.943 (.004)
	≤ Moderate	43(21.5)	3.6±0.45		3.7±0.36		3.6±0.36	
Hospital stay (self)	Yes	91(45.5)	3.7±0.45	-0.632 (.528)	3.8±0.42	-0.132 (.895)	3.8±0.48	-0.750 (.454)
	No	109(54.5)	3.7±0.40		3.8±0.40		3.8±0.49	
Hospital stay (family member)	Yes	169(84.5)	3.7±0.41	-0.599 (.550)	3.8±0.40	-0.522 (.602)	3.8±0.48	-1.325 (.187)
	No	31(15.5)	3.7±0.48		3.8±0.43		3.9±0.54	
Nurse (family member)	Yes	93(46.5)	3.7±0.40	0.672 (.502)	3.8±0.42	0.601 (.548)	3.8±0.53	0.169 (.866)
	No	107(53.5)	3.7±0.45		3.8±0.39		3.8±0.45	
Job	University hospital	131(65.5)	3.7±0.44	2.288 (.023)	3.8±0.40	1.641 (.102)	3.9±0.49	3.358 (.001)
	Etc	69(34.5)	3.6±0.38		3.7±0.41		3.7±0.46	

a>b: Scheffé test

전공만족도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2.539, p=.012$),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109, p=.036$). 주관적 건강이 ' 좋음' 이상인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t=2.943, p=.004$),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 대학병원급인 경우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358, p=.001$).

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3.7±0.42였고, 하위영역 중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간호사의 자질' 및 '간호사의 사회참여' 영역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0.41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사회적 인식'영역이었고,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간호의 전문성'영역이었다. 전공만족도는 평균 3.8±0.49였다.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세 변수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Table 2> Correlation between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of major

Characteristics	Mean±SD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of Major
Nurse image	3.7±0.42	.676(<.001)	.495(<.001)
Qualification of nurse	3.8±0.52	.599(<.001)	.437(<.001)
Role of nurse	3.4±0.46	.553(<.001)	.347(<.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3.6±0.50	.474(<.001)	.382(<.001)
Social participation	3.8±0.51	.644(<.001)	.499(<.001)
Nursing professionalism	3.8±0.41	-	.661(<.00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9±0.46	-	.638(<.001)
Social awareness	3.6±0.54	-	.551(<.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0.50	-	.462(<.001)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8±0.54	-	.453(<.001)
Originality of nursing	3.9±0.56	-	.298(<.001)
Satisfaction of major	3.8±0.49	-	-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r=.676, p<.001$).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별로는 간호전문직관과 .474 - .644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95, p<.001$)가 있었으며,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과는 .347 - .499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661, p<.001$),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과도 .298 - .638까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3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먼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간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봤는데, 각각 0.1 초과,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일반적 특성 중에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취업 희망기관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여 이들 변수를 통제한 상태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및 취업 희망기관 변수와 함께 간호사 이미지를 투입하여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간호사 이미지는 유의하게 간호전문직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4, p<.001$). 2단계에서는 성별,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및 취업 희망기관 변수와 함께 간호사 이미지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간호사 이미지는 유의하게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9, p<.001$). 3단계에서 성별,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및 취업 희망기관 변수와 함께 간호사 이미지,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2단계에서 유의했던 간호사 이미지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했으며($\beta=.056, p=.431$),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하여($\beta=.581, p<.001$),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6.767(p<.001)$ 로 나타나 완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Table 3>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Adj R ²	t	p
1	Sex(male)	Nursing professionalism	.039	.053	.039	44.8	0.723	.470
	Religion(yes)		.011	.045	.014		0.258	.797
	Subjective health(\geq good)		.061	.053	.062		1.150	.252
	Job(university hospital)		-.007	.047	-.008		-0.146	.884
	Nurse image		.637	.053	.664		12.092	<.001
2	Sex(male)	Satisfaction of major	.083	.073	.070	28.3	1.135	.258
	Religion(yes)		.059	.061	.060		0.975	.331
	Subjective health(\geq good)		.188	.072	.159		2.599	.010
	Job(university hospital)		.124	.064	.121		1.945	.053
	Nurse image		.509	.072	.449		7.062	<.001
3	Sex(male)	Satisfaction of major	.056	.063	.047	46.6	0.887	.376
	Religion(yes)		.051	.053	.052		0.978	.329
	Subjective health(\geq good)		.146	.063	.123		2.325	.021
	Job(university hospital)		.129	.055	.126		2.340	.020
	Nurse image		.065	.082	.056		0.790	.431
	Nursing professionalism		.696	.085	.581		8.225	<.001
Sobel test : $Z= 6.767(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여 향후 효율적 간호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평균 3.7 ± 0.42 로 Gu & Lee[13] 연구의 3.8 ± 0.56 , Cho & Kim[18]의 3.7 ± 0.46 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학년에 따라 2학년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가장 높았고, 3학년 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아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3학년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Kim & Kang[20]은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전과 후, 졸업직전에 각각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여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아졌고, 다시 졸업직전에 낮아져 세 시기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F=25.673, p<.001$)가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대학교 간호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 Ha[21]의 연구에서는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유의하게($F=7.55, p<.001$)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다. 또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 Kim[12]의 연구에서 1학년과 2학년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3학년과 4학년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18.39, p<.001$), Gu & Lee[13]의 연구에서는 1학년, 3학년, 4학년을 비교하였는데 1학년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3학년과 4학년보다 유의하게($F=27.85,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경험 유무에 따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t=-6.15, p<.001$)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임상실습경험 후에 간호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학생들이 입학 시 간호사의 실제적 모습이나 업무보다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왜곡된 이미지와 임상현장에서 관찰하는 간호사의 실제 모습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낮았는데, Choi & Ha[21]의 연구, Cho & Kim[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 & Kim[2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미지 전체 평균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영역 중 '전문직 간호사'영역에서 유의한 차이($t=2.099, p=.037$)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는데, 간호학생의 성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가 있는 군에서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Gu & Lee[13]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Jung & Yoo [23]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군에서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t=2.26, p<.025$)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사랑과 봉사를 강조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졸업 후 희망 근무기관으로 대학병원급을 원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는데, 이론 교육과정이나 실습에서 학업적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대학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이나 지역사회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은 3.8 ± 0.41 로, Park & Oh[24]의 3.9 ± 0.48 , Gu & Lee[13]의 3.8 ± 0.48 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 영역이 가장 점수가 높고,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Lee[1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여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Ham & Kim[11] (201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추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가 있는 군에서 간호전문직관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Lim & Jo[25]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Gu & Lee [13]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는 3.8 ± 0.49 로, Park & Oh[24]의 3.8 ± 0.60 ,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14]의 3.8 ± 0.54 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No, Park & Bae[10]가 3년제 간호과 학생들을 학년별로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전공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Oh[26]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결과($t=3.97, p<.001$)와 일치하였으며, Jeong & Shin[2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 이미지 간에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는 Lee[14]의 연구($r=.82, p<.001$), Gu & Lee[13]의 연구($r=.568, p<.001$) 및 Cho & Kim[12]의 연구($r=.75, p<.001$)와 일치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는 No, Park & Bae[10]의 연구($r=.65, p<.001$)와 Ham & Kim[11]의 연구($r=.570, p<.001$)와 일치하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는 Lee[14]의 연구($r=.71, p<.001$) 및 Park & Oh[24]의 연구($r=.63, p<.001$)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세 변수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서로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를 간호전문직관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Lim & Jo [25]의 연구결과($\beta=.243, p<.001$)와 Ham & Kim[11]의 연구결과($\beta=.27, p<.001$)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고, Cho & Kim[28]은 간호전문직관($\beta=.484, p<.001$)이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Choi[29]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미지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beta=.51, p<.001$)을 주는 변수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더 이상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견지를 형성하므로 간호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이 될 수 있으므로[16], 간

호전문직관을 올바르게 정립시킴으로써 임상실습에서 간호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쳐 간호사 이미지를 지각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략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로 진학한 학생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만족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간호교육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임상실습은[30],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 이미지 사이에 차이를 느끼는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고 전공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간호전문직관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이 미래의 간호사가 될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 향상을 위한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간호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 이미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간호전문직관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제한이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향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융합연구로 추후 간호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간호교육과정 운영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재학생들의 간호전

문직관을 올바로 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호사 이미지와 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사 이미지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호전문직관 정립이 더욱 필요하겠다.

향후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에 간호전문직관을 올바로 정립한다면 간호세계를 보는 학생들의 시각과 해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호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7년도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519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7&s=moe&m=0503&opType=NG>.
- [2] D. A. Brodie, G. J. Andrews, J. P. Andrews, G. B. Thomas, J. Wong, L. Rixon, "Perceptions of Nursing: Confirmation, Change and the Student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1, pp. 721 - 733, 2004.
- [3] C. Beck., "The Experience of Choosing Nursing as a Career",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9, No. 7, pp. 320 - 322, 2000.
- [4] A. Rheume, R. Woodside, G. Gautreau, E. DiTommaso. "Why Students Choose Nursing", *Canadian Nurse*, Vol. 99, No. 5, pp. 25 - 29, 2003.
- [5] K. A. Stevens, E. A. Walker. "Choosing a Career: Why not Nursing for More High School Seni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2, No. 1, pp. 13 - 17, 1993.
- [6] A. M. Kiger. "Accord and Discord in Students' Images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2, No. 7, pp. 309 - 317, 1993.
- [7] V. C. Harvey, N. E. McMurray.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Their Relationship to Attri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6, No. 8, pp. 383 - 388, 1997.
- [8] B. J. Kalisch, S. Begeby, S. Neumann.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Vol. 55, pp. 182-188, 2007.
- [9]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10] J. Y. No, S. J. Park, D. Y. 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2, pp. 88-94, 2012.
- [11]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3, pp. 363-373, 2012. <https://doi.org/10.7739/jkafn.2012.19.3.363>
- [12] H. H. Cho,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48-557, 2014.
- [13] H. J. Gu, O. S. Le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356-7366, 2015.
- [14] S. 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5]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16] Y. M. Kwon, E. J. Yeun.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3, pp. 285-292, 2007.
- [17] H. R. Lee, K. O. Choi, J. E. Ko, M. R. Hong, S. Y. Kim, H. S. Sin. "Survey on Nurse's Imag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of Kyung Hee University, Vol. 15, pp. 45-65, 1992.
- [18] S. H. Jang. Survey on Nurse's Image.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 [19] D.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0] W. O. Kim, H. S. Kang. "Changes of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as Every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0, No. 1, pp. 68-74, 2004.
- [21] J. Choi, N. 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1, pp. 54-63, 2009.
- [22] I. K. Kim,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Nursing Students' Gende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Vol. 132, pp. 30-36, 2016.
- [23] H. S. Jeong, Y. S. Yoo.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29-38, 2010.
- [24]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 [25]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56-566, 2016.
- [26] J. H. Oh. "The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2014.
- [27]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170-177, 2006.
- [28]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87-595, 2016.
- [29] H. J. Choi.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4, pp. 225-237, 2016.
- [30] Y. M. Jung.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55-65, 2016.

저자소개

홍 은 영(Eunyoung Hong) [정회원]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간호교육, 보건교육, 여성건강